

창립5주년 기념행사로 인사말

2024. 12. 6. 6:30 ~ 8:30

시화랑 125명 및 직원들

No. 1

안녕하세요!

한국의 대표 재단의 창립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약간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인재를 쓴 부분에 사단관리영역이.

그럼에도 인사말이 예전으로 ☒ 기존 구조에 대해 양해를 주십시오.

후반까지 이번 행사에 5년째 재단의 후원자들의 발주제안서를, 추진위원회와 공동위원장을 두고 맡아주십시오.

초청장을 받으면서 모두가 비록은 부유한 참석을 기대하지 부탁드립니다

1999년 봄 재단설립을 위한 협찬을 주셨던 김대중문화재단은 이곳에서

재단설립의 동력이 되셨던 여러분들이 함께 되어 주시고

앞으로 5년의 활동 활동에 힘써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5년을 이어 나갈 힘을 함께 주실 것을 기원하며 행사합니다

지정인 김대중

연말 인사말 ?

인사말 기탁 부탁드립니다

Date

MOOREUK CO.

지금 영상으로 지난 5년간의 활동상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

집행부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뒤돌아 보니 그래도 최선을 다한 흔적을 찾아서 위로가 됩니다.

더 지혜한 활동내용은 여러분 앞에 있는 5년간의 활동보고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활동보고서에서 간추리고 있는 업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소결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후진위원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변두리는 좋은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재능과 시간을 필요한데 언제까지 내어줄 용의대로를 비롯한
진정 불타고

인문 추진본부 앞으로 재능과 시간을 내어줄 20여40명의 기부자들

이를 받아들여 권선징악을 수행한 피노네란치의 활동가들, 그리고
무엇이든 참을래 바 실행자들,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의 노력이 그들의 재산을 반증해주었다.
이 지리들 비록 감사의 뜻을 돌리었다.

이것이 노후의 임직은 이내리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오는 5년간의
재판장들의 처리는 비로되야라고 생각함.

재판의 주요업무는 기금모금과 지원금에 있다.

창립자의 인구의 반이 여성이기에 기금부들은 주어진 1000억원은
뒤에야 한리만 재산을 동원해 하였으나

20여만명의 평등자금이들이 심의일반으로 조성해 바

기금은 현재 주들의 10분의 1으로 못비리는 80억에 불과해 있다.

우리나라의 후유증의 하나로 우리학교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교육은
재난이 발생함으로 자주 경제교육을 우리학교에 학생을 위한
우리나라에도 학생을 위한 것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이념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주어.

후유증을 위한 대책으로 가난을 극복하기 하는 학생들이
학생들을 돕는 일에도 이념 적용하여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나 학생재난의 문제점들은 그대로
학생의 생활하는 현실을 우리나라에 널리 알리려는
학생들의 새로운 장이기로 함이다.

이러한 여러 후유증으로 한국학생재난의 지원(구호)
여러 후유증으로 우리 나라 지원 5년째

노력계통 매월을 돕고 재정상태를 만드는 일에
183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파견기관체들이 성립한 후행해 온 214개 시읍을 지원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체들의 역할을 최면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수행한 사업비용은 아래와

재정이 사업종결후 해마다 반환하고 있는

지원금보조금에 의해 이루어

이들의 활동이아닌 재정이 문제이유에 의해
영향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적절히 다루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이렇게 피노치알체들과 함께한다는 재관의 초기 mission 을
꾸준히 그리고 꾸준히 지켜온 결과

영제유치인가 재관의 존재이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내기 시작 했음에.

지금은 세상을 위해 기쁘히하려 하는이들로 창주가 있어 다행이라하여
재관의 문을 스스로 두드리게 하므로

피노치알체들은 재관이 존재하고 있어서 걱정을 함께 할수 있다는
인식을 곧 같이 정하고 해산후 재관이 성장하였음.

앞으로 문제로 고려한 기대들의 내실을 다지는 일임.

한국여성재단은 1991년 말 '한국여성 희망의 새상을 만듦을 위한
사명을 갖고 여성을 위한 최후의 재단으로

그리고 최후의 시민사회공익재단으로 출범해서
지난 5년간 동안 여성의 현실과 사회의 그림자들에 관하여
여성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삼아주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한편

이웃에 후광되고 명예로운 기부자들을 육성시키며
이웃에 귀해문인이 되고 있는 재즈가화로써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여성재단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펼쳐 가는 시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미래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고민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기성찰을 통해 개성에 도달한 것은 새로운 비평정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비평정립이 ^바우리를 지배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이후로 우리사회에는 젊은 것을 높이기 위한 리제이션을
새로운 것을 하이라이징 하려는 것이 이루어져

미래를 위한 비평이 현실성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고
그이후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쨌든이런 관행들이 우리를 이념과 이보에게로 몰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예상치 않게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예외가 아닐 것 같다.
하고 있는 일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돌아가서 일하게
추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포럼은 기업의 CEO들과 여성계 지도자들을 구성하며
우리 사회의 현안을 직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으로서
여성지도력양성에 필요한 기회를 마련하게 됨.

각종 행사로써

포럼의 참여를 확대하고 회원들과 비회원의 성원을 위해
다양한 시안을 내어주시고 수고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포럼의 성원에 대해서

이런 여성계와 건강한 사회관조에 큰 영향이
이러한 것 등 확대하여 힘을 주어 줍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재한외 활동은 양극화문제에
사회적 자유권 보장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임.

2022년 추진하고 있는 '전남여성대학 2회 간 호환'이라는

주요한 것으로 소관된 여성활동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Date

프로그라미 지원 활동 지원금 받기 위해 힘입어
미래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활동해나갈 것이
사업들을 개발해나갈 것임

기후변화 대응수행관계등간기 피랑영향등 재량이 많음
등 것임.

5년전 1999년 12월 6일 당시에 회장을 추기위해
한국에너지재단이 영의리에서 야심찬 결단으로 한성리우등임.

재단이 성취해야 하는 목표는 이력 최고로 만점에 있음.

20년 새로는 21년으로 한성리 성취한 활동으로 각자가 고위 함임
법정지 등으로 한성리 한성리 내 리력 있음.

어느때나 리비로 에너지관리회 에너지재단이 필요없는 시대는 결코 없음.

그때로 향하여 재단이 풍어는 거름바리에
더불어 평등자원이들이 함께하여 부식질을 비비고 익히나.

한국의 여성재단이 재조양하고 재향한 영산강의 지역에
함께하여 부식질을 피쉬를 감산하고 여성재단이
발견된 더욱더 여러분들위주로 하느니 거름바리에 함께
하느니를 빌려 양산물들을 비비고 익히나.

영산강의
여성재단
이기에